



김덕현

광주시청 김덕현 16년 국가대표 ‘굿바이~’

별교 출신 도약종목 1인자... 은퇴 선언 AG·U대회 금 등 국제대회 메달 10개 멀리뛰기·세단뛰기 한국신기록 보유 박사과정 준비하며 국내대회만 출전

한국 육상 도약 종목의 간판스타 김덕현(35·광주시청)이 태극마크를 반납한다. 김덕현은 "16년간의 국가대표 생활을 마치고 내년부터 국내대회에만 전념할 계획"이라고 28일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전 한국 육상 도약을 대표했던 높이뛰기 이진택(전국체전 메달 15개 국제대회 메달 8개)의 국가대표 생활(13년)보다 더 오랜 기간 달았던 태극마크를 반납하게 됐다. 김덕현은 한국 도약종목 1인자다. 멀리뛰기(8m22)와 세단뛰기(17m10) 한국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별교 출신으로 광주체고 1학년 때 엘리트 육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세계육상선수권, 올림픽 등 메이저대회에 출전해 굵직한 기록을 양산하는 등 도약 종목에 이끌렸다. 지난 16년간 태극마크를 달고 국내외를 누비는 동안 전국체육대회에서만 33개의 메달을,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 아시아육상선수권에서는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광주체고 2학년이던 2002년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세단뛰기 금메달과 멀리뛰기 은메달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국체전까지 금메달 28개와 은메달 5개를 획득했다. 첫 아시안게임이던 2006AG에서 세단뛰기 동메달을 획득한 그는 2010AG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리고 2014AG에서 멀리뛰기 은메달, 세단뛰기 동메달을 획득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2007년) 세단뛰기 금메달, 2009년 같은 대회에서 멀리뛰기 금메달, 세단뛰기 동메달을 일궈냈다. 아시아육상선수권 세단뛰기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

메달을 수확했다. 김덕현은 "전성기 때보다 좋은 성적 내기 힘든 상황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있으면 내게도 우리나라 육상계에도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선배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국제대회는 2개다. 처음이자 유일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했던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그리고 멀리뛰기 한국신기록을 세웠던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메세 리에드 라미팅 2016'이다. 당시 그는 리우올림픽 기준 기록인 8m15를 가볍히 넘어섰다. 2009년 자신이 작성한 8m20의 종전 한국기록도 7년 만에 2cm 경신했다. 김덕현에게 좌절도 있었다. 2009유니버시아드에서 8m20이라는 멀리뛰기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이후 2011년 큰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겪고 회복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한국신기록을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7년만에 8m22라는 한국신기록을 다시 세우기에 김덕현에게 크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시련이었다. 당시 김덕현은 남자 멀리뛰기에서 8m20을 뛰어 결승에 진출,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예선을 통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복귀를 서두르다가 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후유증에 시달렸다. 김덕현은 내년부터 국내대회만 출전한다. 또한 선수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미래 준비도 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을 시즌 마지막 전국대회인 2020예천 전국대학일반육상경기대회 멀리뛰기에서 동메달(7m10)을 획득한 그는 시즌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11월부터 동계훈련을 시작한다. 김덕현은 "한체대 박사과정 3년 차이기 때문에 공부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체육계 폭행·갑질 논란에 전남도체육회장 사과

"강진군체육회장 거취 고민 중"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이 최근 전남 군 단위 체육회장들이 저지른 공무원 폭행 등 갑질 사건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징계 압박, 지역사회 여론 악화 등 부담을 토로하면서도, 징계 관련 규정이 미비해 조속히 징계를 내리지 못한 점을 설명하며 당사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언급도 했다. 김 회장은 28일 전남도청 기자실을 찾아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일부 지역체육회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폭력과 갑질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피해를 입은 공직자와 스포츠를 아끼고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 초기 "갑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한 뒤 체육회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돌연 관련 징계 규정이 미비해 조속한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등 말을 바꾸기도 했다. "강진군, 보성군 체육회장에 대해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정부와 대한체육회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민선

체육회장의 경우 (당사자의 거취 결단 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고민스럽다"고 언급한 것이다. 김 회장은 강진군 체육회장과 관련해선 "강진군 체육회장의 경우 지역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본인이 거취를 고민 중"이라며 "현재 정상 출근 중이지만 곧 거취 관련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회장의 이러한 언급은 지역 사회 공분, 징계권 부재 등 갑질 사태를 둘러싼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밝히면서 물의를 빚은 지역 체육회장들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이날 ▲폭력 등 스포츠 갑질 관련 22개 시군 체육회 실태 조사 및 점검 ▲제도 개선 통한 스포츠 폭력 및 갑질 발생 시 강력한 제재 ▲22개 시군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임직원 대상 스포츠 인권 교육 확대 ▲자정 노력 강화 등 후속 조치 계획도 밝혔다. 한편 강진군 체육회장은 최근 군수 만찬 일정을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으며 군청 5급 공무원을 흥기로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성군 체육회장은 군청의 보조금 감사를 거부하며 공무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KIA 투수 김재열 머릿속엔 '야구 밖에 없다'

방출 아픔 딛고 KIA에서 새 출발 "잊지 못할 시즌... 더 발전하겠다"

잊지 못할 순간 행복한 시즌을 보낸 KIA 타이거즈 투수 김재열(사진)이 '야구 없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최고의 불펜을 과시했던 KIA는 올 시즌 전혀 다른 불펜으로 고민의 시즌을 보냈다. 아쉬움 속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인 선수가 있다. 27일 KT와의 경기에서도 1.2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허리 싸움을 전개해준 김재열이 그 주인공이다. 김재열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린 건 지난 9월 6일 한화 원정경기에서였다. KIA가 8-1로 크게 앞선 8회말 팬들에게는 낯선 선수, 김재열이 등장했다. 2014년 부산고를 졸업하고 롯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방출의 아픔을 겪은 선수다. 방위산업에서 복무하며 야구 꿈을 놓지않은 그는 올 시즌 KIA에서 육성선수로 새로 시작했고 이날 1군 데뷔전에 나섰다. 결과는 0.1이닝 3실점. 아쉬웠던 데뷔전 하지만 팬들은 마운드 위 김재열을 보면서 그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마운드에서 글러브를 쥐고 있던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김재열은 "데뷔전 때 땀 흘렸었다. 꿈에 그리던 곳이었다. 속으로는 긴장 안했다고 그랬는데 정신이 없었다. 감격이 없었다"며 "나중에 영상을 보고 왜 나 왜 이리도 잊지 못하고 있더라 생각했다"고 웃었다. 간절하게 기다렸던 순간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옆에서 동료들이 그의 시작을 축하하며 큰 힘이 되어주었다. 김재열은 "스스로 실망했는데 형들 덕분에 힘냈

던 것 같다. 투수형들, 서코치님이 조언을 많이 해주었다. (양)현종이 형이 이제 시작이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의 문자도 보내줬다. (박)준표형이랑 같은 방 쓰면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다. 나도 1군에 있는 선수도 같이 뛰는 선수라는 생각에 한 경기 한 경기 경험을 쌓고 자신감도 얻었다"고 말했다. 잊지 못할 시즌을 보냈지만, 더 발전하고 싶은 생각에 그의 머릿속엔 '야구' 밖에 없다. 김재열은 "마운드 올라가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금 준비한 100%를 보여준 것 같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항상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계기가 된 것 같다. 하지만 팬들은 더위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응해야 한다. 잘 하고, 이기고 있을 때 나가고, 팀 성적 좋아지게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항상 기회가 되면 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다. 팬들이 있어서 공 잡고, 공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잘 해서 팬분들 기분 좋게 해드리겠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다저스, 32년만에 '반지의 제왕'

탐파베이 3-1로 꺾고 월드시리즈 우승... 터너 경기 중 코로나 확진

1번타자 출전 최지만 1볼넷 1삼진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탐파베이 레이스를 꺾고 32년 만에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우승 반지를 거머쥐었다. 다저스는 28일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탐파베이를 3-1로 제압했다. 시리즈 전적 4승 2패를 기록한 다저스는 1955-1959-1963-1965-1981-1988년을 이어 구단 역대 7번째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2016년 다저스 사령탑에 오른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2017-2018년 월드시리즈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우승 감동 반열에 올랐다. 탐파베이는 1998년 창단 이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했으나, 2008년을 이어 이번에도 준우승에 그쳤다. 한국인 타자 최초로 월드시리즈 무대에 선 탐파

베이의 최지만은 이날 1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무안타 1볼넷 1삼진을 기록하고 대타로 교체됐다. 몸무게 260파운드(118kg)인 최지만은 올해 정규 시즌에도 7번타 1번 타자로 출전했는데, 포스트시즌에서 파격적으로 리드오프로 출격하며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역사상 가장 무거운 1번 타자'로 기록됐다. 최지만은 첫 월드시리즈를 7경기 1안타 3볼넷 3득점으로 마감했다. 다저스는 선발투수 토니 곤솔린이 1.2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일찍 내려갔지만, 이어 등판한 6명의 불펜 투수들이 추가 실점을 막으며 승리를 합작했다. 한편 다저스 내야수 저스틴 터너는 6차전이 진행되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우승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없었다. /연합뉴스



우승의 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선수들이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러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탐파베이 레이스와의 2020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6차전에서 3-1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2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3관	태슬라, 위플래쉬
4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5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파이널컷
6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9관	담보
7관 씨네커풀	소리도 없이 마이 리틀 포니: 레인보우 로드 트립
8관 씨네커풀	미스터트롯: 더 무비, 위플래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경계의 공간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상자의 길

GAC기획공연 FOCUS
코리안집시 '상자의 길'
2020. 11. 10.(화) 19:3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연습실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청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